

큰빛은혜교회 가정에배지

2023. 08. 08. WED



가정 예배 순서

예배준비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해주세요
인도자 / 기도자 등의 순서를 정해주세요

사도 신경

다 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가 다스릴 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양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어도"

다 같이

- 1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 2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 3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후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대표 기도

가족 중 한 명이 기도합니다

기도자

성경 봉독

열왕기하 6장 14~18절

다 같이

- 14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 15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 16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 17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돌렸더라
- 18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말씀 나눔

영적 시력을 건강하게 만듭시다

인도자

이 세상은 두 개의 세계가 있습니다. 육적 세계와 영적 세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불순종하여 그들은 육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후 모든 인류는 영적 세계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부어 주셨고, 그들은 영적 세계를 보고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람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가 살고 있는 성읍을 완전히 포위하고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엘리사 옆에서 섬기는 사환이 새벽에 일어나 마당을 청소하려 할 때, 수많은 군사들이 작은 마을을 포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깜짝 놀란 사환은 벌벌 떨면서 엘리사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선지자님! 군사들이 우리를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가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를 지켜주는 군사들이 저쪽보다 훨씬 많다!”고 말합니다. “아니, 우리를 지키는 병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때 엘리사 선지자가 선포합니다. “주여, 이 아이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 순간 사환의 영의 눈이 떠졌습니다. 영의 눈으로 보니, 셀 수도 없는 엄청난 천사들이 무장을 하고 엘리사 선지자를 호위하고 있는 것이 보인 겁니다. 그런 다음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여, 저 적군들의 눈을 어둡게 하소서!” 그러자 아람 군사들의 눈이 다 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보는 것’ 즉 시력에 관한 것입니다. 영의 세계를 보는 자, 그리고 눈이 어두워진 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을 많이 고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시력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왜 신약 성경에는 눈 고치는 사건이 많이 나올까요? 기독교 신앙이란 곧 보는 문제라는 것을 알려 주시고 싶은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어떻게 영적 시력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 바라보기

새옹지마(塞翁之馬)라는 고사 성어가 있습니다. 북쪽 마을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의 말이 도망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와서 “아이고, 귀한 말을 잃었으니 어떻게 합니까?” 하고 위로했습니다. 그러자 그 노인은 “어허, 이것이 좋은 일이 될 수 있지요.” 하였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그 도망갔던 말이 수많은 야생마들을 이끌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노인의 아들이 말을 타다가 떨어져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또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노인은 “이것이 좋은 일이 될 수도 있지요.” 하고 답변했습니다. 몇 년 후,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동네 모든 젊은이들이 징집되어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노인의 아들은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 끌려가지 않게 되었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 행복하게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시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겁니다. 모든 것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바라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 노인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지만 긍정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힘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영적 시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을 볼 때 하나님을 통해서 긍정적이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되는 가정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기도의 영적 시력으로 바라보기

존 칼빈은 기도야말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관계를 맺는 힘이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힘이며, 기도는 영적 시력을 건강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한 후에 사환의 영적 눈이 떠지도록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는 영적 시력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교팀 일행이 소아시아 지역(지금의 터키)에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영적인 환상을 보게 됩니다. 드로아 사람들이 손짓을 하면서 자기네로 오라고 하는 환상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은 소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고, 그리스 지역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성령의 뜻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는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지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결과 유럽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미국을 거쳐 아시아, 한국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기도의 영적 시력은 나의 영적 시력을 고쳐 주고 바르게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영적 시력을 키우기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 감사의 시력으로 바라보기

마태복음 14장 13~33절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를 놓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축사는 ‘감사하다, 복을 빌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적은 것을 가지고 감사하셨다는 뜻입니다. 적은 것을 불평의 시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적더라도 감사의 시력으로 보신 것입니다. 그 감사의 시력은 오천 명이 배불리 먹고 열두 광주리를 더 거두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감사의 시력을 키우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축복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믿음, 생명, 영생, 교회, 직장, 건강한 몸, 건강한 정신 그리고 행복한 가정!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를 위해 중보 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감사의 시력으로 영적 시력을 건강하게 지켜 냅시다. 영적인 시력으로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오늘을 감사하고, 또 감사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 기도

다 같이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기 원합니다. 육체의 눈을 의지하기보다 늘 기도와 감사에 힘써 영적 시력이 뜨이게 하시고, 엘리사와 같이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눔

다같이

1. 현재 나의 영적 시력 상태는 어떠한가요?
2. 평소 불평했던 문제들이 있나요? '감사의 시력'으로 같은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봅시다.

증보기도

다같이

1. 큰빛은혜교회의 예비하신 건축(건물, 교회, 땅)이 속히 이루도록
2. 믿음 좋은 장로, 권사, 집사, 청년들과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오도록
3. 산위에교회, 이스라엘 회복, 컴패션 아이들의 건강과 믿음을 위해
4. 홈리스, 버스킹, 어라이즈 워십을 통해 영혼이 살아나도록

주기도문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